

108배로 심신 비우고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

아름다운 동행, 14일 '비움으로 행복찾기' 캠페인 선포

조계종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민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비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움으로 행복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채움이 아닌 비움의 정신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품의 비움 △마음의 비움 △재물의 비움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진행된다. '품의 비움'은 매일 정기적으로 108배를 수행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존중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마음의 비움'은 자기를 제외한 주변과 이웃의 대상 108개를 정해 매일 그 대상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재물의 비움'은 감사와 기원의 마음이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일 1만 800원(1배 100원)을 기부하는 내용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비움으로 행복찾기' 선포식을 거행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기업인 의료계 체육계 문화계 복지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08인으로 구성된 발기인을 비롯해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엔 언제 어디서나 108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CD를 배포하고 비움의 저금통을 전달해 매일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지난 6일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이 7일 승가교육진흥위원장을 맡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승가교육진흥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교육원장 현승스님, 총무원장 스님, 월정사 주지 스님. 김형주 기자

월정사, 승가교육진흥기금 2000만원 기탁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이 승가교육진흥기금 2000만원과 논산 훈련소 범당 건립 기금 1000만원을 종단에 기탁했다. 정념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승가교육진흥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포교원장 혜총스님에게 논산 훈련소 범당 건립 기금 1000만원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월정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도 기금을 내줘 고맙다"며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기금으로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월정사 뿐 아니라 (다른) 교구본사에서도 심시일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면 (승가교육과 군포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승가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단에서 추진하는 교육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약속한 액수

지만 산중(山中)의 뜻을 모아 내게 되었다"고 기탁 배경을 설명했다. 정념스님은 "미래지향적인 (승가)교육과,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도제양성이 과제"라면서 "승가교육을 통해 불교 발전과 승가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념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과 교육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교육 개혁에 깊이 공감한다"며 종단의 승가교육제도 개선에 대해 지지 입장을 전했다. 이성수 기자

장학위원회 출범 후 첫 장학금 5명 선발

해외 북경대 일혜스님
국내 일안스님 등 4명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스님)가 출범 후 첫 장학금을 선발했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내 4명(석사과정 2명, 박사과정 2명), 해외 1명(박사과정) 등 총 5명의 스님을 2010년도 종단 장학금으로 선발했다. 해외 선정자는 일혜스님(비구)으로 중국 북경대학에서 화엄철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국내 선정자는 일안스님(비구, 고려대 동양철학 석사과정), 석중스님(비구, 영남대 한국불교사 박사과정), 명준스님(비구, 동국대 중어중문 석사과정), 선나스님(비구, 중앙승가대 계율 박사과정)이다.

종단이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 수학기회서와 자기소개서, 종단 기여가능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된 장학위원회는 "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늘어나리라 기대한다"며 "이에 따라 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알립니다

수험생에게 단주나누기

본지에서는 수험생을 둔 불교신문 독자 가정을 대상으로 '합격기원 단주'를 나눠드립니다. 단주는 본지 사장 선목혜자스님이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합격기원 기도를 올린 것으로, 독자 1080명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청소년 포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불교용품 전문점 이화불교사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단주는 10월29일 등기로 일괄 배송합니다.

신청 : 02-730-4405

불교신문사

우익스님과 함께하는 네팔 자비성지순례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익스님)가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장 선목스님)이 주관하는 '無-우익스님과 함께하는 네팔 자비성지순례'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네팔 카투만두-포카라-롬비니를 순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보시로 포카라 라쪽마을에 건립되는 '참 좋은인연 BUD (BUD Children Care Center) 기공식'도 거행될 예정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의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동산을 순례하는 이번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행사명 : 無-우익스님과 함께하는 네팔 자비성지순례
- 일정 : 10월25일~10월29일(4박 5일)
- 주최 :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설 NGO사단법인 '참 좋은인연 BUD'
- 주관·진행 : 불교신문사, 명보국제항공(주)
- 예약마감 : 15일
- 동참금 : 170만원
- 문의 : (053)474-8228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총무실장 권우돈) (02)733-1604 불교신문사 010-3686-1582 (전략기획팀장 여태동)

"교구본사, 논산훈련소 범당 건립 동참" 당부

총무원장 자승스님 "군포교 활성화 첫 번째 과제" 범여사, 3000만원 보시... "말사도 참여하도록 노력"

논산 훈련소 범당 건립 기금에 교구본사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총무원장 스님이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일 제14교구 본사 범여사 주지 정여스님(사진)에게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영무사 건립 기금' 3000만원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교구본사 주지사들이 심시일반의 마음으로 동참하면 훈련소 범당을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인



정여스님 범여사 주지

교구본사는 물론 나부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곧 동참할 생각"이라면서 "군법당 건립 예산이 많

이 드는데 범여사가 어려운 형편에도 동참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범여사 주지 정여스님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족해서 죄송하다"면서 "군법당 건립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말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여스님은 3개월 전에 논산훈련소 범당을 방문한 사연을 설명하면서 "짧은 장병들을 위해 연에인단을 구성해 공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군인들을 위한 연에인 위문 공연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KTX 울산역 '통도사' 명칭 없어졌다

5면

"능사 목조불상 부실 제작"...국정감사

5면

제15대 중앙총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오는 10월 28일은 우리 종단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회의원은 원용의 의사결정을 숙고하면서 종도의 공의를 대변하고, 총정통제의 책무까지 다해야 하는 진중한 헌신의 봉사자입니다. 더불어 종도의 뜻으로 선출하는 의미 또한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오랜간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선거제도의 개선은 물론 선거문화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중의 공의를 모을 수 있는 적합한 현실의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고, 대중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여 토론하고 앞으로를 가능할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공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그 사유가 분명합니다.

인천의 사표이자 수행자로 구성된 승단의 선거는 승풍을 진작하고 원용화합의 근간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사회를 정화하고 향도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종도들의 발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실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 신념의 여여함을 잃지 않았던 여느때처럼 우리가 만든 청규를 준수하고 나아가 승가의 전통과 위의를 흔들림 없이 임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승가공동체의 본래 가치와 이념을 중책으로 개진하고, 종도의 의견을 중무에 담아야 할 실질의 방안을 제시하는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탁마의 장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선거문화의 정착이자 모든 종도의 바람에 조응하는 것입니다.

애써 가꾸고 다져온 선거문화가 구태의 시행착오로 회귀해서는 안됩니다. 순간을 현혹하는 분별 없는 환심과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비승가적 행위는 각자 스스로가 근절해야 우리의 공의를 전달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중앙총회의 책무와 역할에도 가까이 다다른 것입니다.

진성으로 종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종단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제안과 진지한 논의의 수고마저 권리로 삼는 책임자를 밝은 혜안으로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교구의 선거총무원들은 종도들로부터 일체의 의구심이 없도록 엄정한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도의 여망에 맞추어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하고 공평무사한 선거를 발원하며,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그동안 쌓아온 종단 안정과 화합의 주추 위에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